

Issue Searchlight

Strategist 백찬규 | 3777-8433 | ckcien@kbsec.co.kr
R.A. 서영재 | 3777-8093 | yj.seo@kb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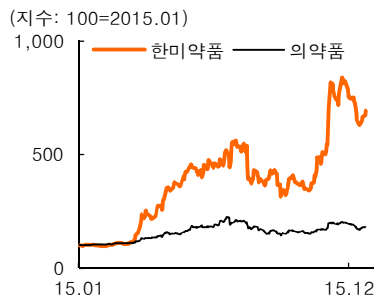
2015.12. 23

숫자로 보는 2015 주식시장

- 2015년 을미년 (乙未年)이 이제 8일 가량 남았다. 연말의 끝자락에서 매년 검허한 자세로 한 해의 증시를 되돌아 보게 된다.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한국 증시 역시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주가지수의 등락을 경험한 한 해였다. 짧게나마 이를 숫자로 정리해 2015년 주식 시장을 되돌아 보고,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丙申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고자 한다.

KOSPI 200 중 수익률 1위는 한미약품, 업종 1위는 의약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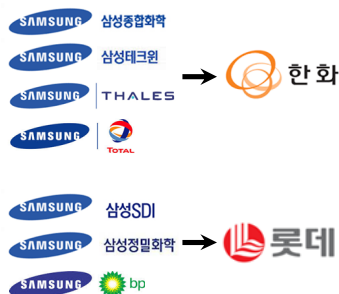


자료: KRX, KB투자증권 / 주: 2015년 12월 22일 기준

- 2015년 KOSPI200 기업 중 수익률 1위는 한미약품이며, 거래소 기준 업종 1위는 의약품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들어 글로벌 제약사와 4차례에 걸친 대규모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면서 연초 대비 593.1%의 상승률을 보였다. 의약품 업종의 경우 올해만 80.9%를 상승률을 자랑하였다.
-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규모는 약 7조 5,600억원 수준으로 한국 제약 업계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렸으며,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였다. 글로벌 고령화 추세에 따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수혜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의약품 업종의 발전을 기대한다. 특히 내년은 상위 제약사의 L/O 및 L/I를 통한 신규 사업 모델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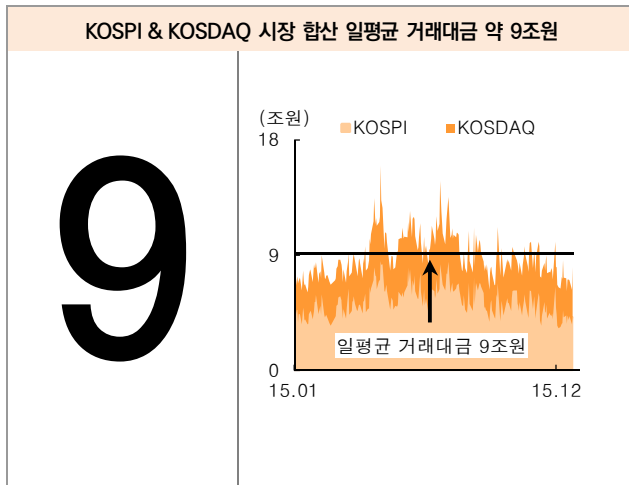
변화하고 있는 삼성, 미래를 기대해 본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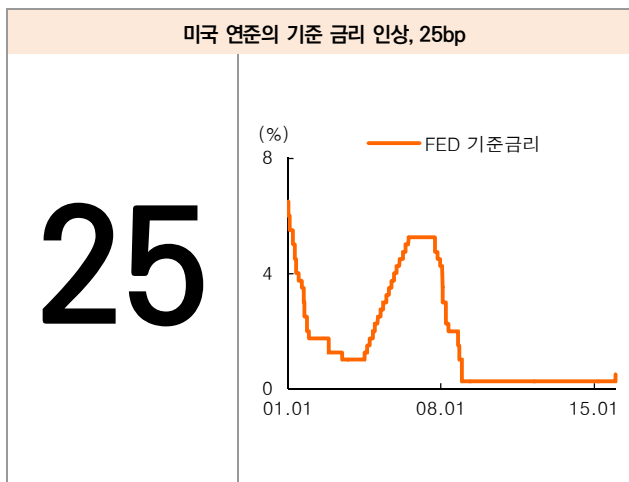
자료: 각 사, KB투자증권

- 지난 1년간 삼성그룹에서 다른 그룹 소속이 된 7개의 기업이 있었다. 삼성중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토탈은 한화그룹의 품에 안겼으며,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삼성SDI의 케미칼 부문은 롯데그룹으로 옮겨 새 보금자리를 꾸렸다.
- 삼성그룹에서 떠난 이전 삼성 관계사들은 새로운 그룹에서 주력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부상했으며, 삼성은 제 3의 도약을 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와 더불어 막대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삼성그룹은 신사업 발표,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주식시장 내 시총 비중이 큰 삼성 그룹의 내년도 전략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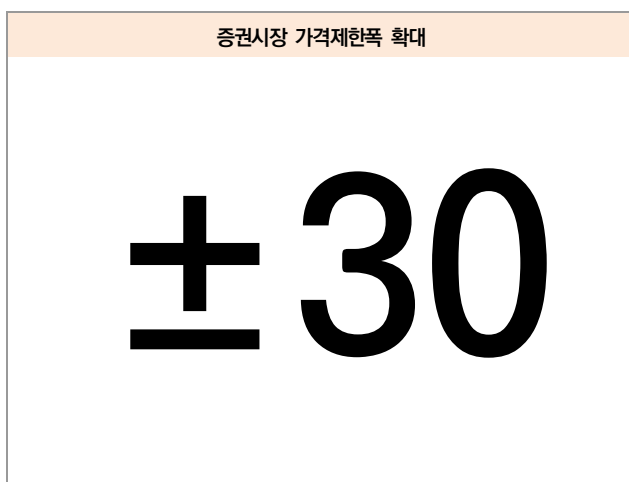
자료: KRX, KB투자증권 / 주: 2015년 12월 21일 기준

- 2015년 KOSPI, KOSDAQ 양 시장의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조원에 달하는 8조 9,131억원으로 지난해 일평균 5조 9,590억 원 대비 49.5% 증가하였다. KOSPI 시장은 약 35.0% 증가하였으며, KOSDAQ 시장은 약 79.0% 증가하였다. 올 한해 시장을 주도한 중소형주 열기를 알 수 있지만, 지난 8월 이후 거래대금 증가는 한 풀 꺾였다.
-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사의 이익 증가로 연결되어 상반기 호실적을 보였으나, 8월 시장 급락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KB투자증권은 2016년도 상반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대형주 및 가치주를 제안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시장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해 본다.



자료: FRB, KB투자증권 / 주: 2015년 12월 22일 기준

- 미국 연준이 현지시간 기준 지난 12월 16일, 7년 만에 25b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목표금리는 0.25~0.50% 수준으로 변경되었다. 인상 배경을 살펴보면 경기가 양호한 상황이며,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은 견고하고, 고용시장은 개선 중이며, 물가는 낮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연준의 기대감이 있다.
- 시장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다음 차례로 신흥국 상황 재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KB투자증권 보고서, 7년 만의 금리인상, '상당 기간 점진적' 인상 속도는 긍정적, 문정화). 연준은 향후 금리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 했다. 경제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과 당분간 목표금리가 장기 목표금리 (3.5%)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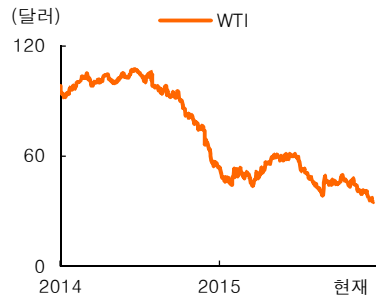


자료: KRX, KB투자증권 / 주: 2015년 12월 22일 기준

- 2015년 6월 15일, 한국거래소는 17년 만에 가격제한폭을 이전 $\pm 15\%$ 에서 $\pm 30\%$ 로 확대했다. 확대 이전 신용에 대한 우려로 중소형주 위기설이 나오며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중소형주, 거래량이 작은 종목, 우선주 등 소위 품절주 중심의 상승이 돋보였다.
-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시장참여자의 가장 큰 우려는 가격변동 범위가 넓어진 만큼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자본시장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도개편 전후 각각 35거래일의 변동성을 비교해 보면 이전과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소폭 감소하여 기우에 그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닥을 모르는 유가의 하락, 연중 저점 34.73 달러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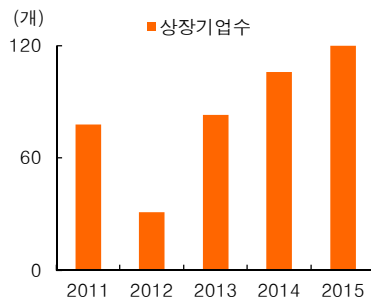


자료: KRX, KB투자증권 / 주: 2015년 12월 22일 기준

- 지난 6월 10일 WTI 기준으로 61.36달러에 달하던 유가는 하락을 거듭해 지난 금요일 12월 18일 기준 34.73달러까지 하락했다. 2015년 연평균 49달러를 29.1% 하회하는 것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
- KB투자증권은 지난 보고서를 통해 *(치킨게임의 끝은? 내쉬균형을 통해 본 유가전망, 김정호)* 단기에 유가가 30달러를 하회할 수도 있으나, OPEC 국가의 한계 직면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 측면에서 50달러 후반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 19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단기적으로 러시아 및 이란에 대한 사우디의 견제 및 미국 셰일 가스에 대한 우려로 OPEC 감산이 쉽지 않아 보여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뜨거운 IPO 시장, 신규 상장기업 121개

121



자료: KRX, KB투자증권 / 주: 2015년 12월 22일 기준

- IPO 규모로는 2002년 이후 13년 만의 최대 수준인 총 121개 기업이 KOSPI, KOSDAQ 시장에 신규 상장하였다. 이 중 14개 기업은 KOSPI 시장에, 107개 기업은 KOSDAQ 시장을 선택했다. 총 121개 기업 중 37%를 차지하는 44개 기업은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한 SPAC 기업이 주를 이뤘다.
- 2015년 시장의 주도 업종을 대변하듯, 바이오, 화장품, 항공 및 부품 등의 기업 상장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공모 시점을 미루거나, 혹은 공모주 수익률이 떨어지는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

지주사 전환은 지속될 것, 지주회사 총 140개

140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총 140개사로 지난 1년간 8개가 증가했다. 지주회사 전환 시 과세특례 법안이 2018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되었으며, 원상법의 세제지원책 역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되어 통과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 지주회사의 인기는 국내 증시에도 여실히 드러나 KOSPI 내의 시가총액 비중이 올 초 5.8%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KB투자증권은 지난 보고서 *(지주회사 언제까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강선아)*를 통해 지주회사 섹터 투자 의견을 OVERWEIGHT로 밝혔으며, 지주사 전환을 통한 각 기업집단 내 수혜 가능 기업에 대한 투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KB투자증권 / 주: 2015년 12월 22일 기준

2015년 지수 평균 KOSPI 2,012.58pt, KOSDAQ 674.72pt

2,012 674

자료: KRX, KB투자증권 / 주: 2015년 12월 22일 기준

- 다사다난했던 2015년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의 평균은 2,012pt를 기록했다. 업종별 움직임은 다양했으나, 시장은 다시 한 번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4월 장중 고점인 2,189.51pt를 기록하면서 2011년 기록했던 역사적 고점에 도전했으나 다시 지난 5년의 중간값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 반면, KOSDAQ 지수는 연평균 674.72pt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 788.13pt를 기록하였으나, 한 달 만인 8월말 경 610.12pt로 하락하면서 급변동을 보였다. 이후 KOSDAQ 반등은 700선을 돌파하지 못하였고, 최근 또다시 변동성 확대를 경험했다.

후강통 개시 후 일년간 국내 투자자 거래 규모 약 13조원

12,887,400,000,000

자료: 증권업협회, KB투자증권 / 주: 2015년 9월 30일 기준

-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후강통 시행 이후 일년간 국내 투자자의 거래 규모는 약 13조원에 달했다. 거래의 약 절반 이상이 3월~5월에 집중되었고, 동기간 상해종합지수는 3,300선에서 5,000선까지 51.5% 상승했다. 중국 개별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는 중국 본토뿐만이 아닌 국내까지 이어져 중국 주식 투자 관련 서적과 세미나 그리고 방송 등이 쏟아져 나왔다.
- 그러나 6월 이후 상해종합지수는 과열양상을 보이다 후강통 시행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2,850pt까지 하락하였다. 상반기 국내 투자 트렌드를 지배했던 중국 직접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거래규모는 급감했다. 투자 대상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유효하나, 국내 주식투자를 대체하는 전략은 분산투자 차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TF 시장 확대 예상, ETF 순자산 규모 약 22조원 수준

21,822,100,000,000

자료: KRX, KB투자증권 / 주: 2015년 12월 21일 기준

- 상장지수펀드(ETF)의 확대가 눈에 띄는 한 해였다. 펀드의 종류, 잔고 규모, 숫자가 일제히 증가했다. 초기 시장은 주식형 지수 중심에서 주식, 채권, 선물, 원자재, 해외지수형 등으로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ETF로 이동했다. 11월말 기준 순자산 규모는 21조원을 돌파했으며, 12월 ETF 상품수는 200개를 넘어 섰다.
- 최근 2년간 성장이 주춤했던 ETF는 내년 재차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내 ETF 상품 편입을 허용함에 따라 연기금, 펀드 등의 기관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 상품에 따라 추적 오차 및 동일 상품군 내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기 전에 운용 능력을 점검하고, 거래량 및 규모를 파악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